

# 전주시, 시내버스 결행 없앤다

### 법규 위반 근절위해 시민 접수되는 민원 외 버스운영관리시스템 활용 집중 단속 지난달 회사 내 충전소 들러 연료 주입 노선 중간부터 단속 운행 차량 19대 적발

전주시가 시내버스 결행 등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로 부터 접수되는 민원 외에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3월 한 달 간 버스 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내버스 운행 이력을 조회한 결과 가스 충전을 위해 회사 내 충전소에 들러 연료를 주입하고 운행노선 중간부터 단속 운행한 차량 19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A여객회사의 경우 가스 사용료 체납으로 버스기사들이 가까운 충전소에서 연료를 주입하지 못하고 소속 회사에 위치한 충전소에 들러 연료를 주입하면서 일부 결행 행위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해당 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했으나 점검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최근 시내버스회사에 △ 운수종사자들이 첫차 운행 전 또는 막차 운행종료 후 연료(가스)를 충전하지 않고 운행도중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무단으로 노선 이탈 및 결행

하는 사례 △식사를 위해 결행하는 사례 △단속운행에 대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운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운영관리시스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시내버스의 결행과 노선이탈, 단속운행, 무정차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드해 나갈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한 불편민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접수 민원과 별도로 수시로 전산시스템 점검을 통해 단속을 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결행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므로써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 공급업체에 7000여 민원의 가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회사 내 충전소 외 다른 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했던 A여객회사의 경우 지난 달 29일 미납된 사용료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여객회사의 시내버스가 회사 내 충전소 외에 다른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스 공급업체 측에 요구하는 등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채규남 기자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김중규 부안군수가 '부안참뽕'과 '천년의 솜씨' 대상을 수상한 뒤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불법폐기물 문제 해결 위해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 남산주민대책위원회가 남산면 해동환경 석산복구지 지정폐기물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4일 시청 상형실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정현율(중앙 왼쪽) 시장과 김승일(중앙 오른쪽) 전북도 행정부지사, 환경부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출자 추진

### 전북도-생진원, 출자기술 선정 협의 내용 바탕으로 심의 거쳐

전북도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4일 2018년 도정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출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기술사업화 제도로 출연기관,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중 지분 포함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특구 안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2015년 7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자, 생진원은 지난해 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기술출자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을 통해 기존의 연구성과 사업화 방식인 기술이전으로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연구기관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기술출자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화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먼저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출자기술 선정 협의 후, 두 번째로 출자 기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출자 계획을 연구기관 이사회 심의를 거쳐게 된다.

김동수 생진원장은 "가능성시장이 확대되어 가는 국내외시장에서 생진원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해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판매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6·13 지방선거

###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동향 -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야" 한목소리

## 서거석 "지도자 처우 개선 필요" · 이미영 "학교체육 분야 분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강조하며 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4일 서거석 예비후보는 정책 자료를 내고 "당선되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전북도체육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전략종목 육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와 세계 대회에서 지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학교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며 "학교체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자를 늘리면서 이들이 받는 임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체육인과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활성화 제도는 보완시키겠다"며 "학교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예비후보



이미영 예비후보

이날 이미영 예비후보도 전문·생활·학교체육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 교육청의 직제를 개편해서 현재 인성건강과에 묶여져 있는 학교체육 분야를 분리해 체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겠다"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의

단위학교 상황을 고려, 체육공동학습을 실시하고 질 높은 체육교육을 위해 스포츠강사를 체육도움교사로 격상시키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동공간과 체육시설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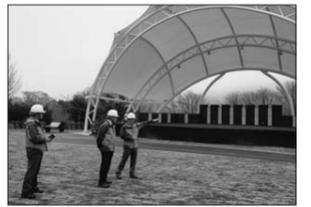
또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선순환구조가 탄탄하게 구축돼 학교체육이 전북체육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역대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 체육회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산민 기자

##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덕유산 점검

국립공원관리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4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덕유산국립공원을 방문해 탐방객이 집중되는 탐방로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권경업 이사장은 구천동어사길~인월담 구간 탐방로와 덕유대야영장 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봄철 해빙기간 탐방객 안전과 아울러 산불예방 등 자연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허영범 소장은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인명사고와 산불 등 자연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